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FTC, FMC사 및 일본 아사히화학(주)의 반경쟁적 관행에 동의 명령키로

FTC는 FMC Corporation(FMC) 및 일본 아사히화학(주)(Asahi Chemical)가 결정 섬유소(micro-crystalline cellulose: MCC)의 세계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공모를 하였다 하여 중요한 의약품 화학제품 시장에서의 위법한 경쟁제한을 종료시키고 이러한 제한적 행위가 장래 재발되지 않을 것을 확보하는 동의 명령안을 발표하였다. FTC에 따르면 FMC사와 아사히화학사는 1984년부터 MCC의 판매시 판매지역을 분할하는 것에 합의하고, 그 후 FMC는 보다 소규모인 경쟁사에 대해서도 공모에 참여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경쟁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기도하였다. FTC의 명령은 양사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MCC시장에서 경쟁이 다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유통규칙을 부과하는 것이다.

MCC는 정제 목재 섬유소로부터 파

생된 것으로 주로 약정제(Pharmaceutical tablet)를 제조하는 경우의 접합제로 사용되고 미국에서 판매된 정제의 대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다.

「FMC사와 아사히화학의 행위는 반경쟁적이며 명백하게 위법한 것이었다. 시장을 분할하고 또는 고객을 할당하는 경쟁업자간의 협정은 FTC가 매우 심하게 생각하는 행위이다」라고 Richard G. Parker 경쟁국장은 말했다.

FTC의 사실인정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거지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의 MCC제조판매업자인 FMC는 10년 이상에 걸쳐 경쟁하는 MCC 판매업자를 약체화 또는 배제시키고 시장독점력의 확보를 기도하였다. FTC는 FMC사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984년경 동경에 본거지를 둔 아사히화학(주)와 MCC시장을 2개의 지역으로 나누는 공모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FMC사는 아사히화학의 동의 없이 일본 또는 동아시아의 고객에게 어떠한 MCC 제품도 판매하지 않고, 다른 한편 아사히화학은 FMC의 동의 없이 북미 또는 북유럽의 고객에게 동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에도 동의하였다.

또한 FTC는 FMC사가 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MCC의 소규모 제조업자 3사와 협정을 체결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3사로는 ① Ming Tai Chemical Co.,Ltd(Ming Tai), ② Wei Ming Pharmaceutical Mfg. Co., Ltd(Wei Ming) 및 ③ the Mendell division of Penwest, Ltd(Mendell)이다. FMC사는 Ming Tai와 Wei Ming이 MCC의 유력한 지역공급업자이며 아시아 고객들에게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럽 및 북미에서 FMC사와 경쟁관계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유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FTC의 사실인정에서는 1995년 1월경 FMC사는 Ming Tai사에 동사가 대만으로부터 수출하고 있는 전 MCC제품을 유통시킬 배타적 권리를 FMC에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거의 동시기에 FMC사는 Wei Ming사가 이 MCC를 FMC에 배타적으로 판매할 것을 제안하였다. FTC에 따르면 상기 목적이 대만 제조업자로부터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의해 FMC의 독점력을 강고히 하자는데 있다는 것이다. 양사는 FMC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또한 사실인정에 따르면 1995년에 Mendell사가 북미 및 유럽에서의 MCC의 지배적 판매업자인 FMC의 지위에 경쟁상의 위협을 주었다. 이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FMC는 양사가

동일고객을 서로 쟁탈하지 않기로 Mendell사에 시장분할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만기업과 마찬가지로 Mendell사는 FMC의 공모권을 거절하였다.

사실인정에 따르면 FMC와 Asahi Chemical은 MCC의 제조판매에 있어 전세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행하고 미국 및 해외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이다.

제안된 화해안에서는 FMC사와 아사히화학(주)은 ①MCC의 판매에 관하여 시장, 고객, 계약 또는 지리적 지역을 분할 또는 할당할 것을 경쟁업자와 합의하는 것, ②MCC의 제조, 판매 또는 마케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것을 경쟁업자와 합의하는 것이 금지된다. 양 사는 또한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는다는 뜻의 협정을 체결하도록 다른 회사를 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공모에 따른 현존의 반경쟁적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FMC는 미국에서 10년간 MCC의 경쟁회사(아사히화학 포함)의 배급자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되며 또한 5년간 아사히화학이 제조하는 다른 어떠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동의 명령안은 FMC사와 아사히화학에 특정의 합법적이고 경쟁촉진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금지사항에는 몇 가지의 제한적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양사는 각각 독점적인 상표인가협정을 체결하고,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고 적법한 합작투자협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FTC가 최종결정에서 위반이라고 주장할 경

우, 양 사 측에서 이러한 행위가 면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제시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동의 명령안에서는 FTC가 양 사의 화해내용의 준수상황을 감시하는 조항을 정하고 있다. 먼저 FMC는 경쟁하는 MCC제조업자와 주고 받은 모든 문서의 사본을 보존하고 FTC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 동 문서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아사히화학(주)은 동 사가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문서를 미국 내·외에 있는 것을 불문하고 FTC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의내용은 2001년 1월 22일까지 Public Comment에 제출된 다음 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Comment는 FTC Office에 보내져야하고 동의 명령안을 승인 Public Comment를 위해 연방공보에 발표하기 위한 위원회 투표결과는 5-0이었다.

2000. 12. 21. FTC 발표

**코닥, Bell & Howell 사
업무분 취득인가 받아**

이스트먼 코닥은 6일 Bell & Howell Co.의 영상처리 사업부문 취득과 관련하여 반트러스트 규제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속 문서 스캐너 생산라인을 취득대상에서 제외된 후 인가를 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코닥과 Bell & Howell이 분당 최고 125페이지를 처리할 수 있고 개당 40,000달러에 달하는 스캐너 제조산업에서 주도적 업체라고 하였다. "원래 계획대로의 기업 결합을 하는 경우 고속 문서 스캐너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의 상실을 야기하여 고객들에게는 가격의 상승과 제품 혁신의 감소를 야기하였을 것이다"라고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들 기업은 지난 10월 뉴욕 주 로체스터에 소재하고 있는 코닥이 일리노이 주 Skokie에 소재하고 있는 Bell & Howell의 영상처리 사업부문 인수를 위해 약 1억 5,000만 달러의 현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하였다.

두 기업은 법무부와 합의 고려했던 인수가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당해 기업결합이 곧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번 인가로 인해 우리는 기업결합을 마무리지을 수 있게 되었으며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한다"고 코닥의 대변인인 Paul Allen은 말하였다.

법무부는 코닥이 Bell & Howell Imaging Cobusiness의 문서 스캐너 사업부문 취득을 포기할 것이며, 이에는 Copiscan과 8000Plus 계열의 기기들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2001. 2. 6, The New York Times

다우 케미컬, 미 FTC로 부터 유니언 카바이드의 기업결합인가 받아

반트러스트 규제당국은 5일 다우 케미컬이 73억 달러로 유니언 카바이드를 취득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다우 케미컬이 핵심 플라스틱 기술과 3개 중첩 화학 사업부문 매각에 동의한 이후 이를 인가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듀폰에 뒤이은 2위의 화학기업을 탄생시키게 될 당해 기업결합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 및 기술 개발과 관련한 경쟁을 상당히 감소시켰을 것이라고 하였다.

“동 위원회의 명령은 장기적으로 이 부문 및 기타 화학제품 시장에서의 경쟁 보존을 의도하고 있으며, 이로써 더 나은 제품을 더욱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게 되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FTC의 경쟁국장 대행인 Molly Boast는 말하였다.

이들 두 화학 대기업간의 기업결합은 1999년 8월에 발표되었으나 뒤이어 미국 및 유럽의 반트러스트 규제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었다.

FTC와의 합의 이후 다우 케미컬은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 생산라인을 과거 이 제품 생산기술의 협력선이었던 BP Amoco에 매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 제품은 쓰레기봉투 및 밀봉이 가능한 식품용기와 같은 플라스틱 제품의 필수요소이다.

다우 케미컬의 전세계 에틸레니아민

사업부문은 텍사스 주 Plato에 소재한 Huntsman Corp.에 매각될 것이라고 FTC는 밝혔다. 에틸레니아민은 수지, 윤활유, 곰팡이 제거제, 펄프 및 종이와 같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2001. 2. 6, Los Angeles Times

미 법무부, JDS-SDL 기업결합인가

JDS Uphase Corp.가 183억 달러로 SDL Inc.를 취득하겠다는 계획은 동 기업이 스위스에 소재한 레이저 공장을 30억 달러로 Nortel Networks Corp.에 매각하기로 합의한 후 6일 미국 반트러스트 당국으로부터 오랫동안 기다렸던 인가를 받았다.

SDL의 주식 취득 -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던 작년 7월 발표되었을 때에는 410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었던 - 으로 인기 높은 광학부품 부문에서의 JDS의 주도적 지위는 더욱 강화된다. JDS는 더 많은 정보를 광섬유 통신 네트워크에 전달하고 전송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부품의 공급업체 중 세계 1위이며, 반면 SDL은 2위이다.

주주들은 2월 12일 당해 기업결합에 관하여 표결할 것이며, JDS는 2월 12일 내지 13일에 결함된 기업의 당해 분기 및 당해 회계연도의 영업이익 및 매출 예상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하였다.

당해 기업결합은 JDS가 JDS-SDL 기업결합으로 야기되는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취리히에 소재한 핵심적인 레이저 제조공장 매각에 합의한 이후에야 인가를 받았다.

분석가들이 널리 예상하던 대로 당해 공장은 세계 1위의 광학 시스템기 공급업체이며 이들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의 다량 구매업체인 Nortel에 매각되었다.

몇몇 다른 업체도 당해 공장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JDS는 Nortel이 당해 공장 제품의 최대 구매업체이며 JDS와의 구매계약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Nortel의 제의를 수락하였다고 하였다.

Nortel은 당해 공장인수가 완료되면 25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며, 만일 2003년 12월 31일까지 JDS에 약속한 부품 구입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 날짜 이후 최고 5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뉴욕 주 Poughkeepsie에 소재한 관련자산도 포함하고 있는 공장인수는 2001년 1/4분기에 완료될 것이며 매입비용을 제외하면 Nortel의 금년도 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ortel은 당해 공장의 주요 고객목록을 인수하고 JDS와 다른 구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하였다.

당해 공장은 JDS의 매출 및 예상순이익의 5% 미만을 차지한다고 재정담당 임원인 Anthony Muller는 Banc of America 기술회의에서 로이터에 밝혔다.

작년 하반기에 JDS와 인수 논의를 개시하였다고 로이터에 밝힌 Nortel은 금년 여름에 자사의 부품 사업부문

일부를 공기업으로 분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취리히 공장은 980 나노미터 펌프 레이저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Nortel은 밝혔다. 이 기술은 광섬유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광신호를 증폭시킨다. SDL과 결합한 이후 JDS는 이번 공장 매각이 없었다면 당해 시장의 80% 이상을 지배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당해 기업결합을 검토하던 미 법무부는 밝혔다.

JDS Uniphase의 기업인수 움직임 중 가장 최근의 것이자 최대인 SDL 취득으로 인해, 더욱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980종류의 칩이 JDS의 제품군에 추가된다.

1999년 6월 캘리포니아의 Uniphase Corp.와 캐나다의 JDS Fitel 간의 61억 달러 규모의 기업결합으로 탄생한 JDS는 일련의 기업인수를 통해 확장하여 왔다. 이제까지 최대였던 JDS의 기업인수 사례는 2000년 1월 E-Tek Dynamics Inc.를 174억 달러로 인수한 것이었다.

Uniphase Corp.는 취리히 공장을 IBM으로부터 1997년 4,500만 달러에 사들였었다. 당해 공장 매각은 루슨트 테크놀로지, 코닝, Furukawa Electric Co.Ltd.와 같은 당해 제품을 탐내는 부품 제조업체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가들은 말하였다.

비교적 소액의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SDL은 통합되어 가는 시장에서 인수 대상인 최대의 주요 독립적 공급업체였기 때문에 광학 부문의 보배로 평가되었다.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와 British Columbia의 Victoria에 소재한 본사들에 공장을 갖고 있는 SDL은 2000 회계연도에 5억 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16개 제조공장을 갖고 있는 JDS는 14억 달러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세계 최대의 광섬유 케이블 공급업체들인 Nortel과 코닝이 SDL 인수경쟁을 펼치고 있을 때 JDS가 더 나은 인수조건을 걸고 뛰어든 것으로 널리 믿어지고 있다. SDL 인수를 간절히 원했던 JDS는 또한 SDL의 5명의 최고임원들에게 총액 2억 1,500만 달러 규모의 계속 근무 보너스를 지급하였다.

2001. 2. 6, The New York Times

**흑연 담합 사건에서
기업, 임원이
가격고정으로 유죄 인정**

14일, 미국의 한 평형상태 흑연 제조업체와 모기업의 일본인 임원이 미국 철강산업의 일부분의 가격을 고정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제소내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미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일본의 경영임원이 미국 반트러스트법 위반에 대하여 징역형이 될 지도 모를 형벌을 받는데 합의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Toyo Tanso USA는 1993년 7월부터 1998년 2월까지 평형상태 흑연 가격을 고정하고 동 산업에서의 경쟁

을 제거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에 대하여 450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하였다. Toyo Tanso의 모기업인 일본의 Toyo Tanso Co., Ltd. 임원인 Takeshi Tagaki는 동일한 공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하였으며,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평형상태 흑연은 전극, 금속주조의 금형 및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알갱이 형태의 탄소 제품이다.

계속 진행중인 동일한 조사의 일부로서, Carbone of America Industries Corp.는 2000년 3월 가격고정 제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715만 달러의 벌금 납부 명령을 받았으며, Carbone of America의 사장이자 최고경영자인 프랑스인 Michel Coniglio도 유죄를 인정하고 10만 달러 벌금 납부에 합의하였다.

2001. 2. 14, The New York Times

**미 법무부,
마이크로소프트 조사**

반트러스트 위반을 둘러싸고 회사를 분할하라는 연방판사의 명령에 관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경쟁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지분 취득에서 유래하는 반경쟁적 행위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연방 반트러스트 조사관리들은 Corel Corp.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가 워드프로세싱 및 스프레드시트 응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키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Corel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매출은 마이크로소프트의 90% 시장점유율에 비한다면 보잘것 없지만, 캐나다 오타와에 소재하고 있는 당해 기업은 워싱턴 주 Redmond에 소재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중요한 경쟁상대로 인정되고 있다. Corel은 워드퍼펙,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경쟁하는 공개 플랫폼인 리눅스 운영체제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있다.

이들 두 기업의 관계에 대한 조사는 3주 전 개시되었는데, 14일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에 의해 확인되었다.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0월 Corel에 1억 3,500만 달러를 투자한 행위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당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이다”라고 법무부 대변인인 Gina Talamona는 밝혔다.

Talamona는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이 또한 11억 달러 규모인 마이크로소프트의 Great Plains Software Inc. 취득계획도 조사중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14일의 보도를 부인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경영자인 스티브 볼머는 당해 기업이 Corel의 의결권 없는 주식 24.6%를 취득하는 이번 거래를 옹호하였다.

“우리는 우리와 소비자 모두에게 전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투자를 Corel에 행하였다. 우리는 정부단체를 비롯하여 모든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볼머는 14일 말하였다.

메릴린치 소속의 분석가인 Henry Blodget은 시장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위로 인해 동 기업은 높은 정도의 엄밀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내 생각으로는 이들 조사가 이제서야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어쩔 것인가? 경쟁업체를 살려두기 위해 누군가를 제재할 것인가? 믿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Corel과의 합의가 Corel이 경쟁 플랫폼 상에서 작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정부의 반트러스트 소송과는 별개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동 기업을 2개 회사로 분할하라는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에 대하여 항소중이다. D.C.지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에서의 주장을 2월 26~27일에 심리할 것이다.

시애틀에 소재한 Ragen MacKenzie 소속 분석가인 Jonathan Geurkink는 이 사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종류의 조사를 받기가 더욱 쉬워졌다고 하였다. “내 생각에는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행하는 모든 일은 세밀한 관찰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2001. 2. 15, Los Angeles Times

비슈롬, 반트러스트 소송에서 1,750만 달러로 화해

20일 발표된 1,750만 달러 규모의 화해안에 따르면 비슈롬은 동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검안사들을 통해 교체용 콘택트 렌즈를 구매하도록 강제하였다는 내용의 제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불 및 할인 제공을 하게 될 것이다. 최근 13년간 교체용 콘택트 렌즈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최고 120달러의 환불 및 할인 혜택의 수령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 관리들은 말하였다.

당해 합의로 인해 1994년 뉴욕 주 및 31개 여타 주, 그리고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하였던 반트러스트 소송은 해결된다. 비슈롬은 위법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당해 제소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동 기업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화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비슈롬은 기금에 800만 달러를 출연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950만 달러 규모의 상품 및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다. 비슈롬은 또한 자사 렌즈를 비차별적인 기초 하에서 약국 및 우편주문회사들에게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관련소송에서는 검안사들이 사업자 단체를 통해 행동하여 렌즈 제조업체들과 1회용 콘택트 렌즈 부문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로 공모하고 1회용 콘택트 렌즈를 약국 및 우편주문회사에

판매하기를 거절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Spitzer에 따르면 1회용 렌즈는 다른 콘택트 렌즈와 달리 검안사들이 개별적으로 소비자들의 눈에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국과 우편주문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1회용 콘택트 렌즈를 구입할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바슈롬은 반트러스트 소송에서 화해한 두번째 콘택트 렌즈 제조업체이다. CIBA Vision은 최근 유사한 제소에 대하여 화해하기로 하였으며 6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였다.

화해하지 않고 있는 두 피고는 Johnson & Johnson Vision Products와 전 미 검안사협회이다. 이들에 관한 재판은 3월 19일 플로리다 주 잭슨빌의 연방지방법원에서 개시될 예정이다.

2001. 2. 20, The New York Times

E U

유럽위원회, United 항공과 US Air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

유럽위원회는 UAL의 주요 자회사인 United 항공이 US Air를 흡수 합병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유럽위원회의 조사는 이 합병에 의해 4개의 대서양노선에서 경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Frankfurt와 Philadelphia 및 Charlotte-Pittsburgh간 및 Munich와 Philadelphia간). 그러나 United 항공은 Frankfurt와 Munich간에 가지고 있는 이착륙 틀을 없애므로 당해 노선에 있어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촉진할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United항공과 US Airway Group은 미국에 공동으로 본사를 두고 있다. 양사의 주요 사업지역은 미국이지만, 양 항공회사는 유럽과 미국간의 항공편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유럽위원회에 의한 조사는 EU소속의 15개국에 Norway, Liechtenstein 및 Iceland를 추가한 유럽경제권과 미국간의 대서양노선의 운행에 줄 영향에 집중되었다.

United 항공은 유럽에 있어서는 독일의 Lufthansa항공 및 스칸디나비아제국의 항공회사인 Scandinavian 항공을 포함 Star Alliance의 회원으로 되어 있다. United 항공은 US Air와 Lufthansa 항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집중하여 본건 조사를 행하였다. 그 결과 이 매수가 US Air와 Lufthansa 항공의 주요 노선인 4개의 대서양노선(즉, Frankfurt와 Philadelphia간, Frankfurt와 Pittsburgh간, Frankfurt와 Charlotte간 및 Munich와 Philadelphia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매수는 Frankfurt와 Philadelphia간은 2사 내지 직행편 서비스연합을 초래하는 것이며,

Frankfurt와 Philadelphia간, Frankfurt와 Pittsburgh간, Frankfurt와 Charlotte간 및 Munich와 Philadelphia간에는 유일한 직행편 서비스(US Air)에 가장 주요한 이들 항공노선에 경유편 항공회사를 결합시키게 될 것이다.

참입 또는 이들 노선의 증편에 관한 실질적인 장애는 Frankfurt와 Munich 공항의 과잉밀집에 있다. 이 과밀은 참입 또는 노선의 증편에 필요한 적절한 이착륙시설을 얻게 됨으로써 당해 노선에 있어 새로운 또는 다른 추가 서비스를 항공회사가 제공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조사에서는 합병에 의해 영향을 받는 노선을 이용해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이 항공회사의 요금을 선택할 폭이 줄어들거나 없게 됨으로써 기존의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겼다. 유럽위원회의 염려를 제거하기 위해 United 항공은 경쟁항공의 시장참입을 촉진하기 위해 Frankfurt와 Munich간의 이착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다.

본 건은 미국 사법부에서도 조사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가 행한 평가는 US Air 및 United 항공양사가 동맹참가자와 운행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간의 대서양노선인 EU와 관계 있는 시장에 한정된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001. 1. 15, 유럽위원회 발표

EU, CD 가격 조사

유럽위원회는 세계의 주도적 음반회사들에 대한 카르텔 조사를 개시할 계획인데, 동 위원회는 이들이 유럽연합 내에서 CD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고정시키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15 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의 집행부격인 동 위원회는 EMI와 타임워너간의 합작투자사업 계획에 대한 조사에서 가격담합을 시사하는 정보를 발견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가격고정행위를 하였다고 결정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5대 음반회사들은 작년 5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들이 5년간 미국 내에서 CD 가격을 과도하게 청구하였다고 제소를 결정한 이후 동 위원회와 화해하였다. FTC는 소매업체들의 최저 판매가격 설정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1997년 이후 4억 8,0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였다.

유럽 관리들은 FTC로부터 미국 내에서 인위적으로 높게 형성된 CD 가격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았다. EU에서는 많은 경우에 CD 가격은 미국보다 높으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음악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카세트 테이프보다 3분의 1 정도 가격이 높다. 당해 산업은 EMI-타임워너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심사의 일부로서 집중조명을 받게 되었다. EU의 경쟁담당위원인 마리오 몬티는 당해 기업결합을

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소수의 기업들이 암묵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음악 산업에서 집단적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가격고정의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반트러스트 관리들은 음악산업에서의 다른 연계도 보다 엄격히 심사하게 될 수 있다. EMI는 독일의 베텔스만과 기업결합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또한 EU의 심사를 받게 될 것이다.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음반회사들은 EMI, 타임워너, 소니, 베텔스만 및 유니버설이다. EU 경쟁담당 관리들은 기업들이 가격고정에 이를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의 하나인 음반판매자료모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음악산업의 통계를 수집하는 미국 회사인 닐슨을 조사중이다. 동 정부는 또한 이탈리아 시장에서의 높은 CD 가격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음반회사들이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으면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유럽위원회에 대하여 CD 가격을 조사하도록 수년간 로비활동을 벌여 왔다. 영국 소비자협회는 자신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EU 관리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여 왔다고 하였다. 동 협회는 미국 10대들의 우상인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 CD 앨범을 조사하였다. 동 CD의 가격은 미국에서는 평균 10.77파운드(15.62달러)인 반면 EU에서는 12.08파운드로 차이가 있었다. EU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지역은 로마로서 14.16파운드였고, 런던은 12.26파운드였다.

2001. 1. 26, Financial Times

영 국

영국 공정거래청, 운임을 결정한 택시회사에 대해 경고

영국 공정거래청은 금일, 민간 Hire 택시회사가 요금의 설정을 공동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를 하였다.

경쟁당국은 Bury 민간 Hire 조합의 조합원에게 경고서를 발송하였다. 회원은 운임을 맨 처음 1마일은 1.60파운드, 그 후는 1마일당 1.50파운드인 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영국 공정거래청은 지방신문의 기사 및 신고로부터 운임협정의 단서를 포착했다. 동 조합의 조합원은 9명으로 보고되어 있다.

존 워커 공정거래청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민간 택시조합과 같은 소규모 사업자일지라도 1988년 경쟁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 동 법은 대부분의 경제분야에서 대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가격협정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모든 신고는 공정거래청에 의해 조사될 것이다. Bury의 경우, 이

단계에서는 경쟁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파악할 때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것이다”

2001. 1. 10, 공정거래청 발표

일본

야마가타치(山形) 현의 「관제담합」 현장조사

야마가타치 현이 발주한 농업토목공사의 입찰을 둘러싸고 현의 지방사무소 직원들이 사전에 수주업체를 결정하는 등 업체간의 수주조정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있어, 공정취인위원회가 30일 아침부터 신압시의 사무소 등 현의 부속기관과 업체단체 및 토목업체 약 20개소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의 혐의로 일제히 현장조사를 개시하였다.

농업토목공사는 수주총액 기준으로 연간 수십억 엔에 달하나, 발주자가 참여한 “관제담합”에 의해 최근 수년의 입찰제도는 형식화되었다고 보여진다.

현장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최고 지방사무소 외에 신압토지개발사무소와 동 현 건설업협회 최상지부, 동 지부의 간사회사 등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동 지부에 가입한 신압시 등 8개 시·정·촌의 토목·건설업체는 임의단체인 「농업토목기술연구회」의 회합 등에서 관개배수 및 농로정비 등 양 사

무소가 발주하는 농업토목공사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업체를 결정하는 등의 담합을 행하였다고 한다. 이 담합에는 양 사무소의 현 직원이 깊이 관여하였다고 보여지며, 업체 측에 발주공사의 내용을 알린다든지 낙찰예정업체를 할당하는 ‘지시’를 낸다든지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공취위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해 이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양 사무소의 발주담당부서가 되는 농촌정비과 및 총무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과거 수년분의 공사입찰 관련 자료 및 메모류 등의 제출을 받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과 관계자의 사정청취로부터 업체담합의 실태와 발주자인 현 측의 담합관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동 현 농림수산부에서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제3차 토지개발 장기계획」에 근거하여 논밭의 구획정리를 하는 포장정비사업,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농로, 집락 배수정비사업 등 농촌의 기반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0년도 현 전체의 총 사업비는 약 313억 엔이다. 이 중 최상지구에서는 정비가 지연될 기미가 있는 포장정비를 중심으로 이미 입찰이 종료된 공사의 수주계약 총액은 수십억 엔에 달한다고 한다.

2001. 1. 31, 요미우리신문

독점법상 타사주 보유 규제 등 재검토 - 공취위가 연구회 설치

공정취인위원회는 7일, 대기업이 보유한 타사주에 관한 규제 등 거대한 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 독점금지법의 규정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하였다. 지식인들에 의한 「독점금지법연구회」(경제거래국장의 사적 연구회)를 설치, 15일에 첫 회합을 갖는다. 올해 가을에 보고서를 정리할 방침으로, 내용에 따라서는 내년의 정기국회에 독점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사의 순자산액을 상회하는 액수의 타사주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할 것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이 국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때 그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5%(보험회사의 경우는 10%)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5% 규칙」도 재검토의 대상이 된다.

2001. 2. 8, 요미우리신문

이탈리아

이탈리아 경쟁당국, Enel 취득 조사 개시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Enel이 최근 이탈리아 2위의 고정선 전화사업자인 Infostrada를 110억 유로화(100억 달러)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위원회로부터 조사 이관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작업을 22일 개시할 것이다.

작년에 영국의 보다폰으로부터 Infostrada를 취득한 사실에 대한 면

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경쟁당국은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영 전력대기업인 Enel이 이미 이탈리아 전력 시장에서 확립되어 있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부당하게 강화하게 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유럽연합 경쟁담당위원인 마리오 몬티는 19일 Infostrada 취득 건은 이탈리아 고정선 전화사업과 인터넷 시장을 한 사업자에게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Enel은 이미 프랑스 텔레콤과의 통신합작투자사업인 Wind에서 지배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Enel과 프랑스 텔레콤은 Infostrada와 Wind를 기업결합할 계획을 갖고 있다. 몬티 위원은 이에 대하여 우려 대상은 아니지만 Infostrada 취득이 Enel에 대하여

전기와 통신의 공동요금청구 및 판매 촉진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전력시장에서 Enel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탈리아 내에서 제기되었다고 하였다.

유럽위원회는 Infostrada는 고객층으로서 상당수의 중소기업을 확보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동 위원회는 이들은 통신을 포함하는 통합 기반사업 서비스제공 제안에 특히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몬티 위원은 이러한 사실이 '근거가 없지 않은' 우려를 야기하였다고 하였다.

이탈리아의 반트러스트 당국은 이제 30일 내에 Enel의 취득을 인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01. 1. 21, Financial Times

게 시 판

본 협회,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매뉴얼) 열람 실시

본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및 우리 나라 주요 기업의 준수편람(매뉴얼)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으로 미국 GE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에 관한 가이드, 일본 NEC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편람, 미국 변호사협회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매뉴얼(Allied Signal Inc, Amoco, The BFGoodrich, Chevron, Columbia/Health Care, The Dow Chemical, General Electric, General Motors, Hogan & Hortson, IBM, ITT, Mobil, Owens-Illinois, Pfizer, The Quaker Oats, Rohm and Haas, Scientific-Atlanta Inc, TRINOVA, United Technologies, Dupont 등), 그리고 우리 나라 삼성전자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과 LG그룹의 공정거래법 업무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회원사에서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코자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